

이 한권의 책

신년호부터 신설되는 「이 한권의 책」란에서는 과학자들의 삶이나 학문에 영향을 끼쳤거나,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저서를 과학자들이 직접 소개한다. 이번호에는 홍문화박사가 번역, 출간한 「Man, The Unknown」을 소개한다.

Man, The Unknown  
「未知의 인간」

알렉시스 카렐 지음  
홍문화 옮김



狀腺腫) Le goitre cancéreux(1900), 「The Treatment of infected wounds (1917)」, 「The Culture of organs (1936)」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L'Homme, cet inconnu(Plon, 1935)」 및 「Man, The Unknown(1935)」을 비롯하여 「Le Voyage de Lourdes(1949)」 「Réflexions sur la conduite de la vie(Plon, 1950)」 등이 별세 후에 출판되었다.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1935년 출판과 동시에 18개 국어로 출간되어 수백 만부가 팔린 명저(名著)이며, 본인은 미국 판인 「Man, the unknown, Halcyon House Edition, 59th Edition, 1938」을 읽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간

「生命에 대한 無知」 의학적으로 해명  
동맥 봉합술 창시자인 저자, 파리서 영양부족 운명

저자인 Alexis Carrel은 원래 출생이 프랑스여서 알렉시 카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겠다. 1873~1944년 생리학자. 프랑스 리옹 출생.

리옹대학을 졸업한 후 한동안 모교의 해부학 조수로 근무하다가 190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에서 생리학을 연구, 1906년 록펠러연구소로 옮겨 1912년부터 정식 연구소원이 된다. 생리학 및 생리외 과학분야에서의 연구업적에 의하여 1912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업적은 동맥봉합술(動脈縫合術)을 창시하고, 조직이식법(移植法)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정상 조직의 이식술, 조직배양법에 널리 응용되어 생리학, 병리학 및 세균학의 진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저서로는 전문서적으로서 「갑상성종(甲

한 것이 「미지의 인간, 알렉시스 카렐 지음, 홍문화 옮김, 청림출판, 1990」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던 앙리 베르그송(Bergson, Henri, 1859 ~1914)도 지적하였듯이 「생명에 대한 무지(無知)가 인간지식의 특징」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해명한 것이 「Man, The Unknown」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없이 많고 복잡한 세포, 조직,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체를 국소적인 해부와 분석으로 병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병적 상태를 화학물질인 의약품으로 치료 또는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현대 의·약학의 우월성이며 업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면역요법, 호르몬, 비타민, 화학요법제 등이 개발되고, 놀라운 수술요법으로 기사회생시키는 예



洪文和  
(서울대 명예교수)

가 수없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대의학의 승리가 인류가 건강을 획득하는 방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데서 Alexis Carrel의 저서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는 “현대의학은 모든 인간에게, 인간 특유의 정확한 생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유년성(幼年性) 사망율의 감소와 절대빈곤의 극복, 감염병의 박멸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명국의 정신병원이 항상 초만원이고 해마다 증가하며, 또한 성인병이 범람하는 것을 볼 때에 생체의 자연법칙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적인 패러다임체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비과학적이며 미신이라고 때려치울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 그렇다면 과학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와 아량을 지녀야 할 것 아닌가.

과학지중의 과학자인 알렉시스 카렐이 이와 같은 사상적 전환을 이루게 된 데는 연유가 있다.

프랑스 서북부, 스페인과의 국경근처에 루르드(Lourdes)의 샘터가 있는데 성모마리아의 공덕에 의하여 물체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알렉시스 카렐이 1902년에 순례단의 의사로서 동행하여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말기(末期) 복막염환자가 기적적으로 쾌유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데서 비롯된다.

과학자가 과학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무모한 모험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지켜본 것을 입증하고 발표하였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작용을 해석함에는 물론 정밀한 과학적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신비적인 투시, 텔레파시, 강신술, 영매(靈媒)에 이르기까지를 과학적으로 풀이하여 비로소 인간을 총체적, 종합적 통합체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렐은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서양식 사고방식에 대한 경고와 과학문명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철학자 이상의 깊은 통찰을 겸비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인간을 생리적, 이성적, 감정적인 기능 모두 포함시킨 작용으로 보았으며 하나로서의 전체개념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1939년에 2차대전이 발발하자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록펠러연구소를 사임하고 최고의 능력을 지닌 소수의 연구원들로 이루어진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조국인 프랑스로 돌아갔다.

당시 프랑스는 독일 나치의 점령하에 있던 시절이라 불완전한 생활 환경 가운데서 과로를 거듭하다가 결국 영양부족으로 1944년 11월에 파리에서 운명하였다. 좀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였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절실하지만 지금 남겨놓고 간 그의 저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생각이 담겨져 있다.

현대의학에서 불멸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본성과 미래에 대해서 탁월한 독창력으로 고찰하여 젊은이들을 희망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삶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카렐, 그는 인간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눈을 열게 해 주었다.

그는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운명하기 몇주일 전에 정식으로

로 가톨릭에 입신·귀의하였다. 전연 발붙일 곳이 없던 현대의학 가운데에서도 전체의학(Holistic Medicine)이니, 심신(心身)의학이니 자연요법이니 하는 분야가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미신이라고까지 멸시하던 전승요법을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과학의 손이 미치지 못하였을 따름이니 ‘비과학(非科學)’이라고 하지 말고 ‘미과학(未科學)’ 또는 ‘미확인 치료법’(Unproven Method of Treatment)라는 표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만도 커다란 시대의 변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의 저서들의 여기저기에 나오는 어록을 몇개 옮겨본다.

“주여, 당신의 자비에 의하여 사용되는 도구로 저를 삼아주십시오”

“순 이론적 사고는 전면적으로 나의 정신을 만족시켜 준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남 모르는 고뇌, 편협한 동료들 가운데서 숨막히는 감각, 확실한 것에 대한 갈망이 숨을 죽이고 들어있다”

“나는 생체조직이나 내장의 배양보다도, 상처의 치료에 더 관심이 있다. 빈 사상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떤 생리학의 발견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안겨준다”

“위대한 모험에 대한 정열이 끓어오를 때에는 자기희생도 힘들지 않는다. 또한 현대인의 개혁처럼 보람있고 위험한 모험은 없을 것이다”

그의 동료이던 리보레박사는 다음과 같이 카렐을 평했다.

“그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한테서도 이해받지 못하였다. 그는 그것을 평생 괴로워하였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미지의 인간 (Man, the unknown)」으로 남아 있었다” ①7